

우리 아이가 왕따?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생기는 학부모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내 아이가 '왕따(집단지침)'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구미장애인복지관장 시용 스님(전대중복지재단 정책실장)에게 들어본다.

사회성 부족·비타협적 성격 고치도록 교육 자녀에 대한 관심, 공감 분위기 조성 중요

▲**실태**=2002년 7월 실시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전국 92개교, 학생 5687명 대상)에 따르면 '왕따'를 포함한 학교폭력을 경험한 고등학생은 9.1%, 중학생은 19.4%, 초등학생은 27.3%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의 왕따 현상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라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왕따에 참여할까.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2002년 11월, 학생 500명 대상, 중복응답) 결과에 따르면 다른 아이를 왕따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장난삼아서(46.2%)와 재미있어서(41.4%)였다. 또한 자기가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만 31.4%나 됐다.

▲**가정에서의 대처법**=최근 들어 아이가 불안·초조해 하거나 짜증을 잘 내고 잠을 잘 못자는 등,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학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왕따를 의심해 보아한다. 또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고 용돈을 자주 요구하는 것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시용 스님은 "사회성 부족이나 비타협적인 성격 때문에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된 교육법과 자녀와의 대화 부족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왕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구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간에도 대화 훈련이 필요하다는 시용 스님은 "항상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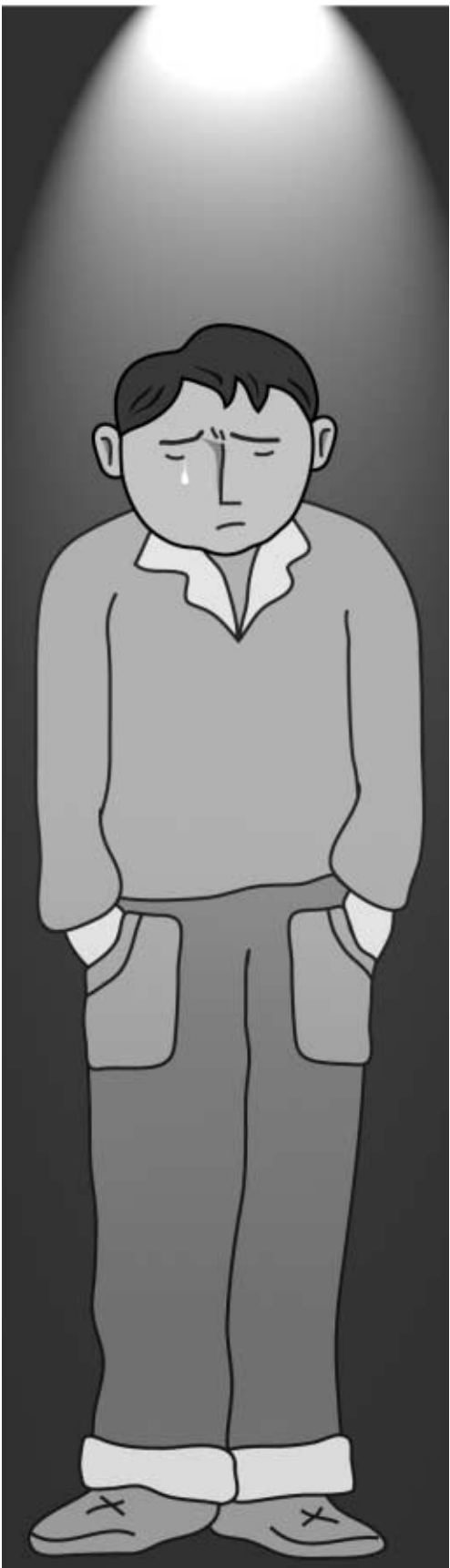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당황하거나 가해자의 학부모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서 '왜 왕따를 당했는지' '언제부터 따돌렸는지' 등을 파악한다. 또한 자녀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피해서 실을 확인한 후에는 학교측에 즉각 알려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사이버왕따 상담실(www.cyberwangdda.or.kr)'이나 전문상담기관의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왕따 극복하기

1.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2. 가해자의 부모를 만날 때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전달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3. 자녀가 학교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전학을 요구할 경우 문제를 해결한 후에 전학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4.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전문상담원, 의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자녀를 무조건 감싸는 것은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 가도록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6.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녀를 야단치거나 변박을 주지 않는다. 자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친구들에게 환대받지 못한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7.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남을 따돌리는 행동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8. 대화의 기술을 가르친다. 감정이 상했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말하기, 남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기 등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일러스트=최정근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할머니와 가출한 손자

오늘은 강화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동생과 함께 강화에 갔다가 시장에 들렀습니다. 봄나물이 낫을지도 모르니 시장에 둘러보고 동생이 앞장을 서서 말합니다. 동생이 생각하는 봄나물은 시장에서 흔히 보는 냉이나 달래 속 같은 것이 아니고 뜰에서 캔 나물을 말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저도 동생을 따라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동생은 어린시절 추억을 얘기하다가 "언니, 옛날에 엄마가 끓여주시던 솔고지국을 다시 한번 먹어 봤으면 좋겠지? 요즘은 딱 솔고지가 날 철인데. 전에는 시장에서 가끔씩 봤는데 요즘은 통 안 보이더라고."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찾고 있는 봄나물이 솔고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솔고지의 표준말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솔고쟁이라고 부르는데 사전에 솔고쟁이라는 말이 없는 걸 보면 그것도 표준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형제는 어린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솔고지국의 맛을 추억 속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시절에 먹던 음식을 떠올리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간 저는 강화시장에서란 맛볼 수 있는 재미를 만끽하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앞에서 시장을 돌던 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제가 동생 쪽으로 가서 "언니, 저거 봐"하면서 시장바닥에 펼쳐놓은 나물을 가리켰습니다.

동생이 가리키는 나물을 보고 있는 제 입가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르스름한 포대 위에 솔고쟁이, 질겅한, 달래가 소복소복 놓여 있어서였습니다. 웅기 웅기 모여 있어서 나물을 캐던 봄날의 들뜬, 캔 나물을 들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보이며 의기양양해

고, 지금처럼 들이나 산에서 나는 나물을 캐다가 팔기도 하면서요. 빈집에 손자를 혼자 둘 수 없었던 할머니는 업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면서 늘 손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손자가 학교에 가게 되어 비로소 하루에 몇 시간씩은 손자와 떨어져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애물단지 이면서도 살아갈 이유의 전부이기도 한 손자는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때문에 할머니는 힘든 줄 모르고 텃밭을 가꾸고 산과 들에서 나물을 캐다 팔면서 손자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손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중학교 입학식 날 옆집 할머니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은 자신에게도 엄마가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고, 어떻게 하던 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집념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소년이 하루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젊은 엄마가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때문에 엄마를 찾겠다고 집을 나선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 넓은 천지에 엄마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수중에 돈 한 톨 없이 나갔는데 잘못되리라도 하면...”

할머니는 그 다음은 차마 상상할 수 없는지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겹게 탄 뺨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꼭 돌아 올 거예요. 꼭 돌아 올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하면서요.

엄마를 찾겠다고 이 거리 저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14살짜리 소년을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소년이 얼른 할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化緣 (02)704-3577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미나리 강회

미나리 50g, 느타리버섯 50g, 대추 20개, 초고추장(사과 간 것 1/4개, 고추장 1큰술, 식초 1큰술, 통깨)

1. 미나리는 줄기만 소금물에 데친 후 헹구고는다. 느타리버섯은 굵은 소금물에 데쳐놓는다.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제거한다.
2. 느타리버섯 위에 대추를 놓고 미나리 줄기로 감는다.
3. 분량의 재료로 초고추장을 만들어 함께 낸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마불연꽃차걸이 세트

안전운전 기원 부담없는 선물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 특히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마불연꽃차걸이'를 자동차에 걸어보자. 노란색과 빨간색 연꽃이 한 세트, 꼭 불자가 아니라도 가볍게 선물할 수 있다. 값 7천원. (02)732-1520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부처님, 걷고 뛰어 다니고 싶어요” (하)

엄범순(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옛날에 열심히 공부하던 스님이 탁발을 다녀오다가 금강경 경전을 풀솜에 떨어뜨렸다. 마침 어느 농부가 물던 소가 그 금강경을 낚아들고 불어 금강경의 책장이 날랐다. 그 인연으로 그 소는 나중 생애 훌륭한 큰스님이 되었다는 설화를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의 몸은 장애인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설악산 신홍사 부처님이 계신 법당까지 들어와 비록 누워서 예불도 드리고 발원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셨다. 그리고 덧붙여 바로 오늘의 인연 공덕으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은 모두 환희심을 느끼는 듯 했다.

설악산을 관세음보살님의 품으로 삼아 하룻밤을 지낸 우리 학생들은 다음날 이른 아침 동해의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희망'이란 글자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낙산사에서는 관세음보살님께 다음 생엔 꼭 건강한 몸 받기를 발원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해수관세음보살님과

사지도 찍고, 절에서 점심 공양 하는 즐거움도 누렸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보니 피곤하기도 할텐데 우리 학생들의 얼굴은 온통 희망 뿐인 듯 너무나 밝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전에 기도했으니 틀림없이 건강해 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한사랑 마을로 돌아왔다. 말을 잘하는 은정, 경수, 형석, 지은, 소희가 “선생님 한사랑에 천천히 들어가요!” 하며 졸랐다. 헤어지기가 싫어서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학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영원히 장애로 있지 않고 다음 생애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듯이,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며 다음에 선생님 집에 개인적으로 초대해 주겠다고 하면서 달래는 가운데 우리를 실은 버스는 학교 중앙현관 앞에 도착했다. 봉사자들을 보내고 짐을 정리하고, 도움을 준 여러 분들에게 감사전화를 드리는 등 마무리를 하다보니 늦게서야 학생들 방에 올라가 보게 되었다. 나를 보더니 윤희, 귀옥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보육교사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에게 물어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별의 아쉬움을 눈물로 표현을 한것이라 말해 주었다. 헤어지는 것이 또 두려운 모양이다. 인간적인 정이 그리운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도 못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졸업여행을 통해 절에 가서 부처님도 만났고, 부처님께 건강한 몸 받

야탑·명성여고 학생들과 정기적인 만남도 장애학생들, 여행통해 희망과 용기 가져

원도 하여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정도 이별의 아픔쯤 이겨내야지... 부친의 부일중학교 양호 교사인 반재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개인적으로 후원금도 주시고 직접 봉사를 해주시고 비상구급약품을 준비해 주시는 등 너무나 자상하게 도움을 주어 여행 내내 마음이 든든했다. 그리고 초등 교직에 40년 동안 계시다가 퇴임후 포교사 품수를 받고, 환갑을 넘겼는데도 장애학생을 위해 여행

에 동참해 주신 류구자 선생님. 평생을 교직에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장애학생들은 처음이라, 일반학교에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여기 선생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시며 중증장애학교 선생들의 힘든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너무나 고맙웠다. 풍부한 교육 경험과 해박한 불교교리로 학생 및 봉사학생들에게 훌륭하게 안내를 해주셨다. 이번 졸업여행에 봉사자로 참여한 학생들은 “힘은 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또 내가 성한 몸을 갖고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남을 위해 살도록 노력하겠

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불러달라”는 소감을 밝혔다. 분당의 야탑고 학생들은 이번 중증장애 학생들의 졸업여행을 통해 자신들이 남을 도왔다고 보다는 도리어 인간적인 진솔한 사랑과 봉사, 결실을 많이 배웠다고 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절에 지속적으로 다니며 공부를 하고 싶다는 소감을 말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후 명성여고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을 만나

기 위해 한사랑마을을 왕래하는 정기적인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기독교 재단이라고 그동안 일요일마다 예배만 드려 하나님만을 알고 지내던 우리 학생들이었지만 불교를 알게되고, 믿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 부처님 저버가 우리 중증장애학생들을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졸업여행기간에 결혼 9주년 기념일이

있었다.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미안했지만 가족들이 이해해 준 것이 큰 기쁨이었다. 중증 장애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 장애 극복의지를 심어준 것을 체할하니 역시 불교가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놈들 다음 생엔 꼭 건강한 몸 받고 부잣집에 태어나게라.” (팔)



그림·김홍인